국제 곡물가 급등에 가격 경쟁력 높아졌는데…

정부, 우리 밀 재배 지원 없다

수매가 매년 2~3% 하락, 경관 보조 직불제등 외면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산 밀과 수입 밀의 가격차가 줄면서 우리 밀 재배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수매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지원도 없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산 수입 밀(백맥)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t당 160~190달러를 유지하다가 2007년 245.73달러로 상승했으며 올해 1월에는 646.94달러로 1년새 2.6배가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4.6배까지 확대됐던 우리 밀과 수입 밀과의 가격차가 올 들어 한때 1.5배까지 감소했으며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밀 재배 확대의 호기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우리 밀 40kg 수매 가격이 3만3천원~3만4천620원 대로 매년 2~3%씩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우리 밀 수매가와 보리 수매를 연계한 때문으로 보리 수매가가 매년 하락하면서 우리 밀 수매 단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할 계획이어서 우리 밀 수매 단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경관보조 직불제 등 우리 밀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전무해 우리 밀 재배 확산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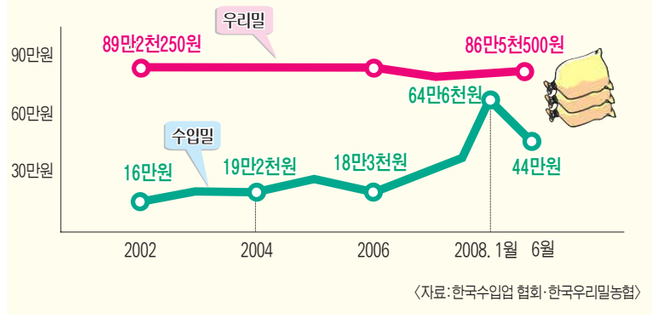
정부는 현재 0.2%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5%로 높일 계획이며 전국 주요 밀 주산지인 광산과 순천 등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도 재배면적 확대와 도정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들은 국제 곡물가 급등을 명맥만 유지하던 우리 밀을 살릴 수 있는 호기로 전환하기 위해 수매가 인상과 보조금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383ha에서 밀을 재배해 전국 우리 말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는 한국 우리밀농협과 함께 송산유원지 인근에 60ha를 추가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도 올해 우리 밀 재배면적을 150ha로 늘릴 계획이며 장성군 역시 장성읍과 서삼·황룡면 일대에 30ha 규모의 우리 밀 재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송기동기자 song@

■ 우리밀과 수입밀 t 당 가격비교



〈자료:한국수입업 협회·한국우리밀농협〉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막 '제3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이 지난 26일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에서 화려한 해상 불꽃쇼와 함께 개막됐다. 이번 제전은 29일까지 요트·트라이애슬론 등 5개 정식종목과 3개 번외종목이 치러진다. /최현배기자 choi@

내달 2~3일 강진서 울트라 마라톤대회

다도해 청정해역인 강진만 해안도로를 끼고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강진 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27일 "강진읍 종합운동장을 출발, 칠량~대구~마량을 거쳐 완도 고금과 약산도를 반환하는 장장 100km 구간의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회는 2일 오후 7시 출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제한시간이 15시간이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과 주신호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등 고위 공직자와 외국인 등 300여명의 마스터스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천년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고려청자 도요지를 지나 천혜의 미항으로 꼽히는 마량항을 거쳐 최근 개통된 고금대교를 건너 약산도까지 가는 환상의 코스다.

대회 조직위는 구간마다 음료수와 수박 화채, 바나나, 삶은 계란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완도 약산 반환점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밥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함평 천지한우' 산업 특구 지정

나산면 구산리 일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일대가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돼 함평 천지한우 명품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 등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함평 천지한우 특구의 경우 '김제 총체보리 한우 특구'가 이미 지정돼 있다는 점 때문에 난관이 있었으나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 신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우량 암소핵군 육성, 고급육 생산농가 확대,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우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함평 천지한우특구 외에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고령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등 총 7개 지역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옛 나주역,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개관…나주역사도 복원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나주역이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나주시는 25일 호남선 복선화 공사에 따른 노선 조정으로 폐쇄된 죽림동 나주역 일대에서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2층 규모로 65억원이 투입된 기념관은 일제 당시 학생독립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각종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 유물전시관을 비롯해 학예연구실, 영상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섰다.

또 나주농업보습학교 학생들과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사건, 나주출신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주제로 한 전시관도 꾸며졌다.

이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옛 나주역에 들어선 수련관은 전체면적 2천300여㎡에 47억원이 투입됐다.

수련관은 다목적 강당과 체육활동실, 동아리방, 자치활동실 등으로 꾸며져 청소년들의 교육과 수련,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또 문화재로 지정된 나주역사(羅州驛舍·도 기념물 183호)도 당시 자료사진과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옛 모습으로 복원됐으며 역사 주변은 야생화 단지와 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시-日 쿠라요시 '자매 결연' 중단

나주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15년 동안 지속해온 일본 돗토리현 쿠라요시(倉吉)시와의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계획된 양국의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전면 취소됐다.

나주시는 지난 1993년 일본 쿠라요시시와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한 이래 공무원 교류근무와 청소년 축구팀 정기 친선게임 개최 등 행정, 문화, 스포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목포항, 국가항만으로 지정해 달라"

목포시·단체장들 '목포항, 지자체 이관' 강력 반발

전남도도 '무역항 기능 상실' 우려…정부에 건의문

목포항이 국가 주요 항만에서 제외돼 지자체로의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목포시와 지역 상공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의 일환으로 항만개발·운영 분야에 있어 부산·인천·평택·당진·군산·광양·울산 등 주요 6개항을 제외한 무역항 22개소, 연안항 24개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은 개발이 낙후돼 있는데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국가 주요 항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포항의 경우 매년 약 200억원 이상의 재원투자가 필요하고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에 210억원, 준설투기장 조성에 300억원, 목포신항 안벽 추가 건설에 약 2천500억원 등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시기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남도로 이관될 경우 개발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우려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종득 목포시장과 지역 각 기관·단체장 15명은 목포시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목포항을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도 목포항이 국가 주요항만에서 제외되면 개발이 침체하고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목포항을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박승준씨는 "목포항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개항 11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목포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포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
/목포=이상선기자 sslee@